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연말까지 월 평균 2500억씩 늘린다

TF장으로 김광옥 부대표 선임 이달 중 新신용평가시스템 적용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 출시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 대출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고객대출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TF장은 카카오뱅크의 경영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옥 부대표가 맡으며, 이형주 비즈니스책임자(CBO)와 고정희 서비스책임자(CSO), 김석 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비롯해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여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중·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중·저신용 대출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을 실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새로운 신용평가모델(新 CSS)을 적용한다.

신 CSS는 지난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카카오뱅크 대출 신청 고객 데이터 및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했다.

중·저신용 고객의 대출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해 대출 가능 고객의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카카오뱅크는 3일 '중·저신용 고객 대출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4380억원이었던 중·저신용 고객의 무보증 신용대출대출 금액(잔액 기준)을 올해 말까지 3조198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순증 목표는 1조7602억원이다.

지난 5개월 간의 순증 규모를 고려했을 때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월 평균 대출 순증 목표는 25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에는 20.8%, 2022년 말에는 25%, 2023년 말에는 30%으로 중·저신용 고객 대출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TF장인 김 부대표는 "올해 카카오뱅크의 최우선 경영 혁신 과제인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사적인 역량을 더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상품·서비스 출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고객 홍보와 프로모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중신용대출'과 '직장인 사이트대출'을 신규로 실행한 고객에게 이자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같은 기간 동안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인 '내신용정보'를 처음 이용한 고객에게는 주점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올해 8월에는 중·저신용 고객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현재 막바지 전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부대표는 "중·저신용 고객들에게 더 높은 대출한도와 금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카카오뱅크가 그간 보여줬던 금융 혁신의 모습들을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하나금융,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출범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성장 지원

하나금융그룹이 청소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미래세대의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복한 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됐다.

재단은 ▲ 보호시설 청소년 학습 및 자립지원 ▲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청소년 자살 및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보호시설 청소년 학습 및 자립지원' 사업은 보호 종료 예정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층 심화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보호시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대 1 학습 멘토링 사업을 진행한다.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업은 통해서는 조손 가정 및 장애인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범 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 병행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소년 분야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는 자살 및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출범식에서 "재단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성숙 있는 변화를 도모하고 그룹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 극대화는 물론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교통안전 챌린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 도모

DB손해보험이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을 위해 나섰다.

DB손보는 지난 2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김정남 부회장이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릴레이 챌린지다.

이날 김정남 부회장은 '1단 멈춤, 2단 저속,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DB손보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김정남 부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 /DB손해보험

삼성생명, 2030년까지 친환경에 20조 투자

2030 중장기 ESG 전략 선언 탄소 배출량 절반으로 감축 고객 중심경영프로세스 구축

삼성생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생명은 최근 열린 ESG위원회를 통해 2030 중장기 ESG 3대 전략을 선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금융에 2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탄소 배출량도 절반으로 감축한다.

삼성생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보험을 넘어, 고객의 미래를 지키는 인생금융파트너'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녹색·상생·투명금융'이라는 2030 3대 ESG 전략도 설정했다.

먼저 향후 10년간 신재생 에너지, ESG 채권 등 친환경 금융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고 탄소 배출량 50%, 종이 사용량 60%를 감축하는 등 녹색금융 실천에 앞장선다. 상생금융을 통해 고객 중심경영프로세스도 구축한다. 행복한 일터를 구현해 임직원의 성장, 양성평등의 조직문화도 확립한다는 전략이

다. 그 밖에도 투명한 금융을 위해 이사회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을 높이고 윤리경영 정착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 ESG 경영 활동이 일상 기업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ESG 3대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고객, 주주,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경영 의사결정에 ESG 관점에서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도입, ESG와 경영활동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지난달 외환보유액 4565억달러... 달러 약세에 사상 최대

전월 말 대비 41.5억달러 증가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 91%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달러 약세에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564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41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고, 금융기관 지준예치금과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4140억5000만 달러로 90.7%를 차지했고 ▲예치금 294억4000만 달러(6.4%) ▲금 47

억9000만 달러(1.1%) ▲IMF포지션 46억4000만 달러(1.0%) ▲SDR 35억4000만 달러(0.8%) 등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1982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일본 1조3785억 달러 ▲스위스 1조704억 달러 ▲러시아 5905억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우리WON뱅킹 '직장인 셀럽 페이지' 오픈

우리은행, 직장인 특화 서비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에 직장인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 직장인셀럽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 직장인셀럽은 직장인의 자산형성에 기여 및 성공을 응원하는 의미의 셀러리업(Salary Up·자산형성)과 셀럽(Celeb·성공, 유명인)의 합성어로 직장인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우리 직장인셀럽 페이지에서는 ▲매월 나의 입출금 현황 ▲급여이체 내역 ▲수수료 면제혜택을 그래프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더불어 자산관리·부동산경매·연금진단 등 직장인 특화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우리은행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최대 200만 포인트의 위비꿀머니와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GS25 모바일 상품권·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매월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우리 직장인 셀럽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서비스 이용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만원(1명), 100만원(10명), 10만원(100명), 1만원(250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1만명)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친구를 초대하고 친구가 셀럽 이용 동의를 하면 본인과 친구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셀럽 초대 이벤트도 실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장인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